

제 12장 중국 공산주의에 저항하다: 빠진 (巴金) I

◆1교시 : 빠진(巴金) 1

▲중국의 ана키스트



중국의 ана키스트들이 많은데, 사람마다 수준이 달랐죠. 모택동도 ана키스트를 먼저 접했죠. 사회주의를 접한 것이 마르크스는 약간 늦게 들어왔죠. 중국에서는 ана키즘이 먼저 전파된 상태인데 1910년대 말이 모택동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를 접한 시기라고 할 때 중국 ана키스트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마르크스주의로 바꿨다고 하죠.

중국 공산당의 초기 거물들, 주은래, 처음에는 ана키즘을 접하고, 신문화운동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서양사상들이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1911 신해혁명 성공했는데, 외부의 정치체제를 서양식을 갖다놓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죠. 사상들, 자유주의, 공화제가 들어오는데, 그중 ана키즘도 광범위하게 들어왔죠.

천두슈[陳獨秀(진독수), 진독수, 1879.10.8 ~ 1942.5.27], 최원배 같은 사람, 북경대학에서 교수를 하거나 총장을 하거나 지식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대부분 ана키즘에 공감하죠. 모택동 경우 진독수에게서 사회주의를 배우는데, 북경대에서 일을 하면서 ана키즘을 배우게 된거죠.

▲유사배(劉師培, 1884 ~ 1919) 스푸의 사상과 삶

유사배(劉師培, 1884 ~ 1919) 스푸는 1900년대 초반부터 신세기와 천이파가 중국에서 나뉘어 있었는데, 프랑스 유학을 하면서 프랑스 유학을 하던 신세기와 있고, 중국사람으로 일본에 가서 1900년대 초반에 고토쿠가 사상계 전반에서 활약하고 있었고, 대역사건으로 처형되면서 그 사건이 퍼지죠.

중국의 경우도 고토구의 사상으로 ана키즘을 접하고, ана키스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1910년대, 20년대 활동한 사람들은 ана키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나중에는 이어가지는 않았지만 빠진의 경우 이어간 사람 중 하나고요, 스푸는 자세히 말해보고 싶은데, 걸출한 ана키스트였는데, 중국 광둥지방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단체를 조직해서 회명학사(晦鳴學舍), 신사를 조직해서 ана키즘을 선전하는 활동을 하죠.

스푸가 만든 신사라는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가지의 자격요건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냐하면, 예를 들면, 나는 군인이 되지 않는다. 군벌이 할거하고 있을 때인데, 장악한 후에도 각 지역에 할거하고 있었고, 육식을 하지 않는다. 당시 중국 ана키스트들은 채식주의자가 많았어요. 스푸는 생활태도가 톨스토이 같은 분위기가 있었고, 종교는 배격을 했지요.

정통 ана키스트의 실천가의 길을 걸었고, 20대 내내 잠도 안자면서 번역, 출판, 활동으로 에너지를 쓴거죠. 신사에 가입하기 위한 강령들 중 음주를 하지 않는다. 흡연을 하지 않는다. 용역을 부리지 않는다. 가마나 인력거를 타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는다, 자기 가족의 성을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통 중국 유교에 기반한 가족 사상이 중국체제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었죠.

아나키스트들은 가족성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 듯 한다. 스푸의 경우 유사복인이 그렇죠, 유사를 떼어버리고 사복을 스푸라고 읽죠. 관리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되지 않는다. 의원이 되지 않는다. 정당,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당연한건데, 그 당시에 보자면 ана키스트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빠진과 관련을 맺었던 조선인, 한국인 ана키스트들이 많은데, 유럽에게 빠진(巴金)에게 에스페란토를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도 파란만장한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죠. 민족주의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경향이 나온 것 같은데,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해방 후 조선의 ана키스트들을 모아놓고 당을 만들어 활동하자고 주장하죠.

다른 ана키스트들은 여러 가지 사회운동, 혁명운동을 해야한다고 논쟁을 벌이죠. 유럽의 경우 독립운동사에서 거물로 치고, 만주랑 조선을 잠입, 탈출, 경찰에 잡히고 감옥에 있고, 만주에서 ана키즘에 입각한 독립운동을 하죠.

심사의 조직 강령에서 의원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지 않는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는다. 종교를 믿지 않는다. 스푸의 경우 31세에 죽죠. 에너지를 소비한 후 폐렴등 몸을 안돌보고 활동하다가 의사가 당신 지금 체력이 바닥났다 고기를 먹어 영양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끝까지 지키죠. 31세에 죽죠.

기본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것이 기본중심인데, 한국의 경우 국가주의에 오염된 종교가 충을 들고 대결하라고 가르쳤죠. 스푸가 죽어가니까 ана키스트동지들이 이러다가 죽겠다, 팔만한 것으로는 인쇄기 밖에 없었죠. 인쇄기가 없으면 활동할 수 없는데, 그걸 팔 수는 없다. 내가 죽어도 출판을 해서 선전해라고 하죠. 동지들의 간곡의 충고마저 거절하죠. 영양실조로 죽죠.

▲빠진(巴金)의 ана키스트 활동

빠진(巴金)의 경우 늦게 태어나서 1920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사람인데, 스푸의 경우 1910년대 왕성한 활동을 했고요. 1915년에 죽었는데, 신문화운동이 그때부터 1910년대 중반부터 불어오는데, 지식인들이 스푸가 죽고나서 애도를 표하죠.

빠진(巴金)의 경우 썼지만 소설가로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중국에서 알려져 있는데 2005년 10월에 죽는데 그 소식이 전해졌죠. 101세죠, 주변 친구들과 이 소식을 접하고 아, 또 한사람이 죽었구나 하죠.

중국인들, 신중국이 된게 1949년 마오쩌둥의 혁명이 일어난 후죠. 그 이후에 아나키즘을 살면서는 고수할 수 없었죠. 당장 끌려가 공개적으로 자아비판을 하고 바꾸거나 유지할 경우 살 수가 없었던 것인데, 중국에서도 이어져 있죠. 빠진(巴金)의 경우 사상을 포기하죠. 1920,30년까지는 죽을 때까지 아나키스트로 남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나는 영원히 국민당에 반대한다. 나는 과거뿐아니라 현재에도 나의 주의를 관 적이 없으며 어떠한 사람, 어떠한 당과도 타협한 적이 없다. 장래에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8년전부터 아나키스트가 된 이래 나는 죽을때까지 한 시각 한 초도 아나키스트가 아닌 적이 없을 것이다.

빠진(巴金)의 경우 1904년 출생해서 1920년 초반인데, 이 말을 한 것은 1920년 말이겠죠. 그때는 아나키즘 운동이 1930년까지 불꽃처럼 타오르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빠진(巴金)이 아나키스트다라고 듣기 전에 유명한 중국 소설가로 들었어요. 사람들이 아나키스트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문학가들은 현대 문학의 6대 거장으로 나오는 사람들, 노신, 빠진(巴金), 곽말약(郭沫若), 노서(老舍)라는 사람 등등이 있죠. 노벨문학상 후배에 오르기로 했다.

2000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프랑스계 중국사람이에요. 프랑스국적을 취득했는지, 그 사람이 200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중국 정부는 빠진(巴金)이 받아야할 상이 아니야라고 했다고 하죠.

훌륭한 소설이 많고, 그 소설 가운데, ‘혁명 삼부작’, ‘격류(집, 봄, 가을) 삼부작’, 활발하게 아나키즘 활동을 하면서 소설을 쓰는데, 아나키스트에 관한 얘기가 있겠죠. 삶의 궤적이 녹아있기도 하고, 아나키즘의 입장에서는 소설들에 녹아있겠죠.

빠진(巴金)의 대표적 소설중 ‘가(家)’라는 소설의, 주인공들을 보면 아나키스트적인 모습이 나오고요, 젊은 시절 빠진(巴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나키즘에 관심갖지 않으면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지금까지 아나키즘에 근거해서 빠진(巴金)을 평가하려고 안했는데, 지금까지도 금지의 대상이니까요.

◆2교시 : 빠진(巴金) 2

▲신중국 건설 후 아나키즘의 행보

신중국이 건설된 후 아나키즘은 퇴물취급을 하고, 순수하게 예전 민국 초기의 아나키즘을 연구한다는 1920년대 1930년대 항일 운동과 아나키즘의 관련 연구차원 아니면 다른 방면에서는 아나키즘에 관련된 얘기를 안해요.

학자들, 관변학자들, 정통 모택동주의 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입장에서 아나키즘을 보는 것은 중국의 학자들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인텔리겐차의 사상, 소부르조아 사상이다. 비과학적인 사상이다. 운동의 실패한 사람이 갖는 사상이라고 평가하거나 극좌, 모험주의, 아나키즘의 경우 후진국에서 만들어진 사상이므로 사상조차도 후진적이다.

아나키즘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학자들이 빠진(巴金)의 소설이거나 1910년대 30년대 커다란 세력으로 있었던 아나키즘 운동을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있죠. 그 당시 아나키스트들은, 1949년 이후에는 한국처럼 해방이후 조선 상황처럼 선택을 강요받았죠.

둘 다 선택지는 아니었어요. 아나키스트입장에서 보면요. 빠진(巴金)도, 국민당도 반대, 공산당도 반대, 평생 무당파로 살았다고 하는데, 빠진(巴金)이 죽는 순간까지도 무당파를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빠진(巴金)이 아나키즘을 버리지 않은 아나키즘 생각이 평생을 관통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빠진(巴金)의 삶 1

빠진(巴金)의 경우 소설의 선풍적 인기를 중국대륙에서 얻고 있었고, 항일운동, 국민당 반대 운동이 아나키스트 입장에서 철저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중국혁명이 이루지고 난 후 위대한 소설가면서 뛰어난 활동을 한거구나 했었죠.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가 모택동의 지배사상을 강요되기 시작하면서 예술의 경우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소련의 경우 1930년대 사회과학 아카데미에서 만들어 예술가들은 이 이념에 근거로 해서 문화활동, 창작해야한다고 했죠. 중국도 연안문화강화라는 예술가들은 정치목적에 봉사하는 작품을 쓰거나 현실을 바라보는 것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야한다는 사상이 있었죠,

거부를 하면서 창작을 하기는 힘들었죠. 1950년대 중반까지는 사상을 버렸다고 얘기했는데도 문화혁명기간에 4인방 그들이 설치면서 말아먹었다는 등등이라는 말을 하죠.

빠진(巴金)도 젊은 시절 아나키스트운동에 관여했다는 것 때문에 문혁에 모진고초를 당했죠. 4인방이 권력을 장악하기 까지, 자신의 문학 전집, 소설, 여러책들을 썼는데, 그 기간에 불태워져 버렸대요. 이것은 독이라고 했죠. 문혁기간을 그렇게 생각했죠.

모택동 사상아니면 부르조아니,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전통문화를 파괴하는 시기가 있었죠.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1956년 이라고 하는데, 중국혁명 성공 후 1949년 중국공산당이 수습을 하고 일본도 물러가고 소수 민족도 국민당이 내려간 이후 모택동의 지배 사상이 확립된 시기죠.

처음 몇 년은 지나다가 1955년에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농민들이나 사상을 제대로 몰라도 현 체제가 잘못되었다 해도 농민중심의 중국을 바꾸자 할 때, 그 때 참여한 사람들이 인민들이죠.

공개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였던 모택동주의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그 대가를 치렀죠. 마찬가지로 상황이 북한, 남한에서도 남아있죠. 문혁이 지난 후에는 복권이 되어서 예술작품이 계급의 도구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닫게 된거죠.

빠진(巴金)의 소설의 작품성에도 주목을 했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화려한 중앙무대랄까, 고위직을 역임하면서 작가와 동시에 활동을 했죠.

▲빠진(巴金)의 삶 2

변하지 않으면 살수 없었죠. 사상을 지켜서 죽거나 변하고 살아남거나, 일제시대 아나키스트들이 북조선으로 혹은 남으로 가야하는데, 북으로 간사람, 남으로 간 사람 죽거나 숙청되거나 다른 활동을 하게 되죠.

끔찍했던 역사라고 보는거죠. 거대한 흐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두 진영안에 제 3의 가능성은 1930년대까지 있었지만 그 이후는 사라지고, 다시 드러난게 6,8혁명이라고 볼 수 있고, 1930년대 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15년 전쟁, 서양에서는 2차 대전의 시기, 산발적으로 남아있던 아나키스트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에 포함되지 않은 제 3의 길이 뿌리 뽑힌 시기죠.

스페인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프랑코 독재에게 1939년에 아나키스트들이 죽거나 스페인을 떠나야 했고요, 1940-1970까지 사상사적으로, 활동의 사회운동이 암흑의 시기였죠.

빠진(巴金)의 경우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는데 20년대, 30년대 활동을 조명하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젊을 때 어떻게 아나키즘을 접하고 아나키스트가 되는가가 흥미로운데, 엠마 골드만은 어떤 경험으로, 신채호는 왜 그런 과정을 밟아서, 가네코 후미코는 어땠는가, 이런 여정인 셈이죠.

빠진(巴金)의 경우 의미가 있죠. 젊었던 시절 여러 가지 신사상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빠진(巴金)의 주의를 끌었던게 크로포트킨이었죠. 크로포트킨의 경우 ‘청년에게 호소함’이라고 있는데, 번역이 있는데, 짧은 글인데, 주장한 내용은 명료하게 들어있어요.

젊은이들이 뭘 할거나, 빠진(巴金)의 경우 크로포트킨의 사상에 매료가 되었죠. 신문화 사상을 접하면서 에스페란토를 접하고, 여러 사회주의 사상가운데 계몽사상도 들어왔고, 아나키스트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크로포트킨의 저작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인들에게 알리고 태어난 것이 사천성 청뚜라는 곳인데, 대학을 입학하죠. 1921년이죠.

▲빠진(巴金)과 에스페란토

대학에서 아나키스트들이 내던 잡지가 자유인데, 빠진(巴金)이 에스페란토가 실제로 배운 적은 없는데, 어떤 이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언어인가를 듣고 크게 감복을 받았다고 해요. 자멘호프 박사가 에스페란토가 처음 만들었을 때 온 인류가 매개어로 다른 평등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인류애를 강조한 거죠. 인류의 평등과 우애, 이런걸 통해 가능하다고 했죠.

빠진(巴金)의 경우 공감했죠. 잡지에 세계어라는 것이 있다면서 설명을 하죠. 1969년 폴란드의 자멘호프의 박사가 만들었는데, 중국의 경우도 소수민족이 많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매개어로서 평등한 언어에 대한 빠진(巴金)의 매료를 이해할 수 있죠.

3회에 걸쳐 청뚜에서 그걸 보았죠. 청뚜에 와 있던 유학생중 유림이라는 사람, 늦은 나이지만 활동을 하다가 오게 되죠. 이력을 보면 1910년대 이때에는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간 뒤인데 조선에서 활동을 하다가 1920년대가 되면 만주로 가서 다른 조선인 아나키스트들을 만나고 1921년에 만주 북경을 다니면서 신채호와 이회영이나 이정규, 이을규 형제를 만나 아나키즘을 접하게 되고 아나키즘을 독립이 방편, 수단으로 받아들인 듯 해요.

활동 자체는 아나키스트혁명가들에게 보여지는 뛰어난 활동을 했는데, 1920년대 초반에 조선을 탈출해서 만주를 떠돌다가 북경에서 조선인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하면서 20대 중반에 북경이나 여기서는 조선인 아나키스트들이 에스페란토를 하고 있었고, 유림도 하고 있었고, 자신이 공부를 더 하다가 스촨성, 청뚜의 문과대학을 갔죠.

들어가서 다니려니까 아나키스트들이 냈던 잡지를 본 거죠. 빠진(巴金)이 에스페란토에 관련된 글을 봤죠. 찾아가니, 빠진(巴金)이 보길, 유림이 자존심이 세고, 정통 양반가의 모습이었죠. 강직하고.

◆3교시 : 빠진(巴金) 3

▲빠진(巴金)의 ана키스트 활동

빠진(巴金)이 조선인들에 대한 생각이 굳어졌죠. 조선인들은 강직하고 타협할 줄 모르고, 곧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유럽에게 받았던 첫 인상이었던 것 같다. 유럽이 가서 빠진(巴金)에게 에스페란토를 할 줄 아냐, 모른다고 하니 몇 개월동안 가르쳐줬죠. 학교를 다니고, 계속해서 빠진(巴金)의 경우 여기보다는 ана키스트운동의 중심지, 상해, 광둥, 1920년대 즈음 점점 ана키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에 필요한 건 혁명이라 생각했죠.

상해에 가서 ана키즘 활동을 하죠. 국가 조직을 변화시켜서 평민이 각종 단체, 즉 교육회, 농업회를 조직해서 교육이나 농업을 관장해야한다고 주장, 평민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자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낸다면 혁명의 전위조직이 없어도 국가를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알리는 활동을 했고, 여러 조선인 ана키스트들과 함께 심용해 유서, 유서도 이론적 실천적으로 뛰어난 활동을 했던 사람, 흑기연맹 1926년 고려청년사라는 단체를 재중국조선아나키스트들이 만드는데, 고려청년이라는 출판물을 내죠.

빠진(巴金)의 문학전집에 공개적 편지가 있는데, 조선인들과의 연대를 통한 저항, ана키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오스키가 죽은 뒤, 썼던 글, 일본 탈출기가 영향을 미치죠. 신채호든, 이회영이든, 중국의 빠진(巴金)이든, ана키스트들은 오스키 사카에의 글을 다 찾아 읽었다고 해요.

빠진(巴金)의 경우 많이 알렸었고, 국제적 ана키스트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 시카고 헤이마켓 ана키스트 운동, 잡혀 들어가 처형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분노를 하죠. 몇 십년이 지난 후 중국에 알려지면서, 혹은 엠마 골드만이 미국 맥킨리 대통령 암살자로 몰렸다. 출코츠가 엠마 골드만의 사주를 받았다, 엠마가 암살 배후로 지목되었다.

▲사코 반제티 사건

사코-반제티 [Sacco-Vanzetti], 이탈리아 ана키스트인데 1920년대 미국으로 이민가서, 못솔리니 권력 장악후 더 이상 살 수 없다. 파시스트가 장악하면, ана키스트들이 씨가 마르죠. 우파가 장악하니 미국으로 가는데 도착하기 전에, 두 사람이 제화공인데, 보스턴 항구를 통해 미국으로 돌아온다면 보스턴의 신발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는데, 일하는 사람 6명이 죽는데 임금이란 문제로 파업을 벌이는데, 그 와중에 경찰도 죽고 노동자도 죽으니까 이 건 ана키스트들의 소행이다라고 했죠.

희생양이 필요했죠. 한국의 경우도 조류독감이 나니까 외국인노동자가 조류독감의 한 원인이다. 정부에서 조류독감이 전역으로 퍼지는 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른

원인이 필요한거죠. 어느 정도 이해할만한 설명을 하려다보니까 동남아시아는 연중 조류독감이 발생하는데,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연중 발생하는데,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묻혀 퍼지게 된거다.

원래 전북 지역을 막고 방제작업을 하면서 평택까지 퍼진 이유를 중복을 넘어 설명하다보니까 그렇죠. 사코 반제티도 그 폭발 사건이 난 일주일 후에 이민자로 들어오는데 미국 경찰은 유명한 이탈리아 ана키스트들이 온다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잠입하러 온 것 아니냐 온갖 정보를 조작한거죠.

사코 반제티가 잡혀 들어가고, 물증이 없었는데도 사형을 당하죠. 재판을 끝다가 폭발사건을 일으켰다고 믿어서 1927년에, 미국 사법제도 역시 역사로 볼 때 전혀 죄없는 사람을 잡아서 죄가 있다고 조작해서 사형시킨 일이 여러번 있죠. 당연히 사형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므로 끔찍한 폭력이죠.

이때 ана키스트들이 연대해서 미국에 항의 서한을 1927년에 보내고 빠진(巴金)의 경우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상해에서 ана키스트들과 어울리며 활동하다가 당시 많은 ана키즘에 관련된 저작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자기는 더 알고 싶다는 지적욕구를 느꼈어요. 제대로 대학공부도 안하고 그래서 프랑스로 2년 동안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가죠.

▲빠진(巴金)의 유학과 귀국

파리에 머물죠. 일본에서 중국으로 간다면 배타고 가죠. 오스기 사카에가 일본 탈출해서 상해로 가서 파리로 갈때도 배를 타고 가는거죠. 빠진(巴金)도 더 활동하다가 배우지도 못하고 소진만 되겠다고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하고 싶었죠.

그때 미국에서 ана키스트 두 명이 감옥에 있고,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프랑스에서 구한 여러 가지 ана키즘 자료들을 계속 중국어로 번역해서 멀리 떨어져있는 친구들에게 보내서 출판하도록 하죠. 지금은 전자우편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편지가 몇 달 걸리죠. 어떤 경로를 밟았느냐면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프랑스에서 미국을 통해, 쓴 원고를 열흘에 한번, 미국에 보내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보냈다고 해요.

2년 후 돌아와 중국에서 ана키스트 활동을 하죠. 빠진(巴金)이 1930년대 이후에는 소설가로서의 길을 예전보다 많이 걷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프랑스유학 과정에서 썼던 '멸망'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귀국해서 출판하게 되는데, 인기를 얻었죠. 깜짝 놀랐죠. 문학적 재능이 있구나라고 했죠. '멸망'이라는 제목이니까 허무주의 냄새가 나죠.

책들이 많이 절판이 되었죠. '가(家)', '봄 속의 가을', 문화혁명 시기에 고초를 겪은 굴욕과 그런 것들을 기록한 '내 노래'는 구할 수 있어요. 소설을 찾게 되면 '멸망'이라는 것을 읽어보세요. ана키스트활동가에서 소설가로 전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중국 정세로 볼 때도 상해와 광둥, 광둥이면 홍콩이죠. 광주, 대도시의 경우 1927년 국민

당이 장악을 해서 북벌도 일으키고 우파 민족주의로 국민당의 주로 색깔이니까, 여기에 찬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백색테러를 일으킨다거나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고 ана키스트들도 탄압 때문에 농촌을 거점으로 삼아 운동을 펴가는 전술로 바뀌게 되죠.

시기적 영향이지만 빠진이 20년처럼 30년대에 열심히 하지 않지만 글을 많이 쓰는 활동하게 되죠.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찾는 것, 행복을 찾는 것이 나의 자유와 행복을 찾는 것이다. 빠진(巴金)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활동한 조선인 ана키스트들이 많아요. 김좌진의 경우 ана키즘을 받아들였다는 논란이 있죠.

